

# 대결의 긴긴 밤을 끝장낼 의지의 과시

지금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온 겨레의 관심속에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있다. 반세기이상 헤어져 살아온 북과 남의 혈육들이 상봉하는 감격적인 현실은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북과 남이 모처럼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협의하는 그날에 하늘에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가 떠서 공화국을 핵위협하였고 며칠후부터는 남조선에서 대규모북침합동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땅에서 전쟁을 몰아오고 겨레에게 핵재난을 들씌우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의 총모성이 울리는 마당에서 사실 인도주의적문제인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지는것은 자명한리치이다.

그런데도 가족, 친척상봉이 모처럼 진행되게 된것은 갈라져 사는 북과 남의 겨레

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동포애와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새해에 들어와 련이은 관계개선의 제안과 호소를 보내 조선반도에 화해의 봄빛이 흘러들게 하였다.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비방중상징주를 비롯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고 련이어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도 남측에 보내 대결의 긴긴 밤을 하루속히 끝장낼 의지를 피력하고 겨레의 통일열망을 북돋아주었다.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획기적인 공개서한은 민족분렬로 당하는 겨레의 재난과 고통을 한시바빠 가시고 백해무익한 북남대결과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를 끝장내려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정신, 단호

한 결심과 의지가 담긴 서한이다.

또한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접촉을 제안하고 국방위원회 대표단을 판문점 남측지역에 파견하였으며 대법한 아량과 통큰 결단으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될수 있게 하고 앞으로 고위급접촉 등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도 《대의를 위해 대국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북》, 《북 통큰 용단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룩할수 있는 의미있는 합의》 등으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지금 온 겨레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공정한 국제사회는 북남관계가 완화된것이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것이 더 큰

관계개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있다.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문제는 이에 남측이 얼마나 적극성과 성의를 가지고 화답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나 겨레의 기대와는 어긋나서, 방금 채택한 공동보도문의 정신과는 위반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남측에서 벌어져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 《비방중상징문제를 체제선언이므로 지속적으로 강화할것》과 같은 대결적인 발언들이 흘러나오는것이 그라하다.

이러한 움직임이 호상리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고위급접촉 합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 대한 근거없는 적대적언행과 비방중상이 대화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격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호상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극단한 결렬으로 몰아가게 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력사가 보여준 실천적 교훈이다.

지난 18일 남조선의 평화통일시민련대 주최로 열린 《2014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 정책건의》좌담회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적행동과 비방적발언들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크게 울려나온것은 우연치 않다.

북과 남은 공동보도문의 귀중한 합의를 준수하고 북남사이에서 가로막힌 해묵은 장에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감으로써 관계개선의 넓은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여기에 민족의 신뢰와 화해가 있고 단합과 통일이 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양점령》에 있다고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강행하려고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방어》의 허울을 쓴 북침핵공격연습이며 이것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불장난이라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제아무리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려 해도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강행하여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평화의 교란자, 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진행되고있다. 전쟁으로 헤어져 수십년간 생사조차 모르던 혈육들이 서로 만나 들썩안고 눈물흘리는 모습을 보며 겨레는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하루빨리 통일이 오기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조선반도 정세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이 벌리



## 60년이상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는데 전쟁연습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남북이 분단되어 60년이상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고있는 상황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해병대들이 최첨단장비들을 가지고와서 전쟁연습을 한다면 그런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상가집에 찾아가 잔치판을 벌리며 춤추고 노래하는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여길것이다. 초상을 치를 일을 앞두고 잔치날을 안을 단박에 거절하고 초

한 북침핵선제공격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이번 상봉행사에 참가하게 된 당사자들로 말하면 미국이 강요한 지난 조선전쟁의 참혹성을 실지로 겪은 체험자들로 시 고령의 로인들이다.

여기에는 전쟁시기 미국의 원자탄위협으로 생체같이 갈라진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전쟁과 핵위협, 분렬로 인한 생리별의 아픔을 안고있는 이들에게 고대하던 상봉의 희망을 안겨주라고 하는 때에

미국이고 반세기이상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바꾸어야 할 당사자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하나의 강도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민족분렬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강요하여왔으며 조선반도에서의 핵폭제를 산생시킨 직접적장본인으로 절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은 저들이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을 뒤전에 밀어놓

고 오히려 공화국을 위협하는 비방중상을 일삼으면서 북남관계개선에 해방을 놓고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적대행위로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으로 떠밀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있으며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교의적으로 긴장시키는 평화의 교살자, 도발자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남의 대자습에 가서 무엇이며 땅, 저렇다 하며 혼시질하고 해방질하는 난봉군처럼 분수없이 놀아떨것이지 아니라 조선분렬의 장본인, 조선반도 핵위협외의 장본인으로서 자기의 도덕적의무와 책임감을 바로 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 분수없는 핵방군

하늘에 핵폭격기를 띄워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는가 하면 상봉행사기간에까지 전쟁화약내를 풍기며 총포성을 터치려 하고있으니 리성이 있는 행동인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부족해서 《북핵문제》니, 《북의 태도변화》니 뭐니 하며 떠드는것은 불신의 감정을 부추겨 북남화해분위기에 해기를 치고 못을 박으려는 미국의 심보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케 한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인류의 눈이 두러워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을 《환영》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있다.

실지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할 당사자도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1960년대 미일간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일본으로 들여오게 하는 핵반입밀약을 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물론 미국의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비행기들이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몰래 들어왔다가였다 해온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당국사이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반입할수 있는 밀약이 이루어졌다는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폭로되었다.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니 지금껏 세상사람들이 모르게 얼마나 많은 미국의 핵무기들이 일본령토에 반입되고 지역의 평화를 위협해왔겠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이 떠들어온 《비핵3원칙》은 한갓 위선이었다. 마찬가지로 《핵무기없는 세상》을 제창하는 미국의 결과 속의 진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세살적버릇 어른까지 간다고 일본이 남의 평토를 강탈하려고 끈질기게 모지름을 쓰고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내외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정 부위규판리의 참가하여 이른바 《다게시마(독도)의 날》이라는 《년례행사》를 음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시마네현은 2005년에 《다게시마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해 놓고 해마다 이따위 광대놀음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평토주권에 대한 잔폭한 침해행위이다.

독도는 조상전래로 조선의 신성한 평토이며 그것은 이미전에 력사적사실자

## 핵 위협 의 장 본 인

일본에는 수많은 미군기지가 있다.

미국본토외에 유일한 미 핵항공모함의 모항인 요코쓰카는 미7함대의 주요거점이다.

또한 해안상륙을 주되는 임무로 하는 갑상상륙함들이 집결되어있는 사세보기지, 전쟁물자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및 중형수송기들이 배치되어있는 요코다기지, 일본서부지역의 이와구니기지 등도 있다.

특히 오키나와섬에는 주일미군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 있는 가메나미공군기지는 《F-22》를 비롯한 100여대의 각종 최신형 전투비행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일본내의 미군사기지들에 아베가 실토한것처럼 반세기 훨씬 이전

로들과 지리적 및 법률적근거에 기초하여 명백히 확증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는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A. D. 500년 이전시기 독도를 발견

##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땅

하고 그때로부터 대대로 이곳을 어업 등의 거점으로 리용해왔다.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조치가 취해진 때 512년이었다.

우리 독도가 우리 나라 평토라는것은 다른 나라 지도에는 물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전 일본지도에도 엄연히 조선땅으로 표기된 사실

##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난 12일과 14일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북과 남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남조선의 각계 층과 조선의 통일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세계평화에 호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 환영해나서고있다.

특히 《북의 통큰 양보》, 《리산 가족상봉에 합의한 북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작

지만 의미있는 합의》, 《북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것》 등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북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의 합의가 앞으로 더 좋고 더 훌륭한 관계발전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한결같이 바란다

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돌이켜보면 북남사이에서 좋은 합의들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여 북남관계가 위기에 빠진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립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지 못했기때문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로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다른 조건에서 민족의 대의를 앞세워 놓지 않는다면 불신과 대결이 심화되고 나중에는 군사적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쳐질수 있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고 계급과 계층의 리익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민족의 대의 그 나라는 통일과 부강번영해야 할 민족의 패일보다 중요할수 없다.

조선사람의 과거 흐르고 시대의 요구를 자각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살든 오직 민족공동의

이 하나의 문장은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든 언론사를, 언론인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목표실현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는 우리 시대 언론의 시대적자각과 의무감을 깨우쳐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북남관계가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의 늪

## 언론의 사명은...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언론의 책임도 크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일부 언론들의 비방중상행위로 초래된것은 북남사이의 더욱 큰 불신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것은 우리 겨레자신이다. 이것은 민족사의 수치이고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북과 남이 서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요구와 리익 그리고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어렵게 행하는것이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리로운가 아니면 해되는 리로 되는가를 늘 생각하며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관계개선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통일을 바라는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이다.

하지만 최근 남쪽에서는 공동보도문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민족의 대의를 다른 무엇보다도 앞에 놓지 못한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먼저 생각한다면 웅양고위급접촉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의 결지에서 풀어나가는것이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가는 과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조선사람으로서의 망심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성증삼

한 이상 북과 남의 언론들도 지난 시기의 불미스러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의와 진리만을 옹호하는 언론의 사명에 맞게 민족화해와 단합, 신뢰의 분위기조성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한줄도 안되는 반통일정책의 광기를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정의의 목소리로 짓눌려버려야 한다. 《언론의 자유》라는 간판

밑에 숨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시대의 악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의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에 맞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이 땅우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될것이다.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조국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상공에 띄워놓고 로골적으로 핵타격연습을 벌려놓아 우리 겨레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보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라 하는 속담그대 로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핵위협은 어제도 오늘도 미국이 공화국을 가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자위적대력을 마련한 공화국의 조치가 얼마나 천만번 정당화한것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술한 핵무기들을 끌어다놓고 공화국을 계속 핵위협하면서 그 무슨 《비핵화》를 떠들어뒀었다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본사기자 명금룡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것은 채집야망이 빠져까지 들어찬 일본당국만이 부릴수 있는 얼빠진 망동이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을 과립칙하게 들고나오는 목적은 그것을 여론화, 국제화하여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조선제침을 위한 조건과 구실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은 만년이 가도 억년이 가도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독도는 영원히 우리 민족의 신성한 평토로 남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독도령유권》주장을 적극 선전하는 정부홈페이지라 는것도 이미 개설하였다.

우리 독도의 고유한 평토인 독도를 빼앗기 위해 일본은 이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놀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날조된 여론을 내뿜리면서 《독도령유권》을 집요하게 고집하고 있다.

우리 독도의 고유한 평토인 독도를 빼앗기 위해 일본은 이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놀아내고 있다.

《학습지도요령해설